



법익 조대 본환 스님 중국 일제종 제44대 종정

“우리의 고통과 번뇌, 무명, 무명, 교만, 질시, 사비 등 일체의 그릇된 생각을 항복시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 불건하는 지성을 찾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한 경음은 삼장(三藏) 12부(部)의 법문의 기자에는 행위자가 깔려있습니다.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교화시켜 국토를 장엄하도록 실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달라이 라마 10~11월 방한 추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조계종 공식 초청으로 10월 말부터 11월 초 방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7일 달라이 라마의 동북아 대사인 자물린포체와 박공서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달라이 라마 방한을 위해 조계종 명의의 초청장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사진)



정대스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이 라마의 초청에 적극적이 못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제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며 “정부에 달라이 라마 공식 초청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물린포체는 “달라이 라마가 향후 3년 정도 일정이 짜여 있지만 한국의 최대 종단인 조계종에서 초청할 경우 한국에 가는 것이 ‘넘버원’이라 말하는 만큼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

1. 북한산 관통도로 관련 불교계와 건설업체 등이 공사일시 중단 등을 합의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잘된 일이다 ② 잘못된 일이다

2. 향후 북한산 관통도로와 관련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신중하고 합리적인 노선 재검토
②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감시
③ 정부의 중립적인 가치판단 ④ 기타

설문 참여: 8월 22일까지 buddhane.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84호 9면에 실립니다.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연말까지 잠정 중단

8월말 대안노선 조사위 구성

철마선원 자진철거, 민사·행정소송 취하

불교계·정부·시공사 14일 합의

불교계와 정부, 건설회사가 14일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를 12월말까지 중단키로 합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택스님과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 의정부시암연회 회장 지섭스님 등 불교계 대표와 추병직 건설교통부 차관, 서울고속도로(주) 최병권 사

공구에 대한 공사 보류 △8월말까지 철마선원 자진 철거 △불교계, 건설회사, 환경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노선조사위원회’ 8월말까지 구성, 12월 31일까지 합의의 도출 △합의의 결렬시 노선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수렴, 정부가 최종 결정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과 관련 각 민사 행정소송 취하 등이다. ※ 관련기사 3면

이로써 북한산 관통도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불교계와 시공사의 9개월에 걸친 대립은 국민 여론 수렴과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불교계와 정부, 건설회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조계종 공동대처위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을 지키기 위해 불교계와 시민단체가 제시한 대안노선과 전문가들의 의견 모두를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노선이 채택되도록 하겠다”며 “노선조사위원회에서도 합의가 이



△ 8·15 민족통일대회 참석차 방한한 박태화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워커히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스님들의 환영속에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정현스님(왼쪽 두번째)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있다. 워커히호텔=고영태 기자

박태화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분단후 첫 남한방문... 통일대회 참석

정대스님 만남·8·15법회 참석 성사안돼

박태화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이 14일 분단이후 57년만에 2002년 민족통일대회 참가자 남한을 첫 방문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은 정대스님 만남과 조계사 8·15법회 참가는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박태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정현스님등과 16일 워커히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상봉모임을 갖고 통일을 위해 남북불교계가 협력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태화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과 장재언 조선종교협회장은 “남측 대표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해와 교류로 통일정토 이룩하자”

광복 57돌기념법회 16일 조계사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주관한 ‘조국광복 57돌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법회’가 16일 서울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택,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천태종 총무원장 운석, 진각종 요암 통리원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정대스님은 원택스님이 대독한 봉행사를 통해 “광복 57돌을 맞아 우리 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정토의

천은사 관람료 소송

대법원, 상고 기각

지리산 천은사가 2월 6일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관람자에게 관람료 일부를 돌려 주라’는 서울지법 민사10부 10부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13일 기각됐다.

천은사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에서 “단순도로 통과자라도 경내도로를 이용한 것은 관람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관람자에 대한 정의가 너무 좁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불자들 환경살리기

9월 8일 북한산 걷기대회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전국금융단불교회 등 직장단체들은 17일 조계사 인근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9월 8일 북한산 일대에서 ‘환경살리기 걷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전국 직장직능 신협단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개방위주의 사업으로 훼손되는 자연환경을 살리는데 직장불자들의 ‘불심’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환경살리기 걷기대회는 입구 매표소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시작으로 산행에 나서며, 천축사에서 환경법회, 선언문 채택, 자연친화활동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우리국화님
코리아부다
KOREA BUDDHA
http www.korea-buddha.co.kr

고불승림방장 서용 큰 스님 / 추천서